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1. 서론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¹⁾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 높은 학업 동기 및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함께 미래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²⁾. 그러나 고교 졸업까지 입시 위주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을 해오다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 생활³⁾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업과 진로, 취업 준비 등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중도 포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욕구와 대학생활 환경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⁴⁾으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⁵⁾이므로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

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기인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⁶⁾. 또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함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깨닫는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인 인식이 필요하다⁷⁾.

자기인식은 자기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인들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⁸⁾, 사회적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할 때 불안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⁹⁾.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써¹⁰⁾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다르다는 타인인식 능력을 갖게 되어 자기인식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의 예측 요인으로 중요한 요소이다¹¹⁾.

타인인식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및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타인의 내면적인 사고나 감정 등을¹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적 타인인식, 외적

접수일: 2023년 12월 9일 최종수정일: 2023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4일

교신저자: 이지영, (52655) 경남 진주시 의병로51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Tel: 055-740-1832 Fax: 0303-0008-1840

e-mail: myolan@hanmail.net

타인인식과 공상적 타인인식으로 구성되고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¹²⁾.

특히,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겪는 대인관계뿐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동료들 간의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담, 구강보건교육 등 치과치료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¹³⁾에 있어 자기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행동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뢰감을 주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14,15)}, 타인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서 상대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대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수준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대학 환경 만족 등 대학 생활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16,17)} 갖추어 개인의 대학 생활 적응력을 키우고 나아가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 등 자기성장에¹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학생들의 자아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인식과 타인인식 관련 연구는 임¹⁹⁾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타 전공^{11,20,21)}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인식과 타인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 생활의 적응력을 키우고 전공 직무와 연계한 핵심 역량 배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남 소재 대학의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활용에 동의를 구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일반적 특성, 자아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를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178명으로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91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자기인식 20문항, 타인인식 21문항, 대학생활 적응 25문항으로 전체 7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및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자기인식

Fenigstein⁹⁾등이 개발한 자기인식 검사를 은¹⁰⁾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 요인으로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사회적 불안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 채점 문항은 7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7$ 이었다.

(2) 타인인식

은¹⁰⁾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 요인으로 내적타인인식 12문항, 외적 타인인식 5문항, 공상적 타인인식 4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1$ 이었다.

(3) 대학생활 적응

이²²⁾가 번안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 요인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5개 요인으로 각 요인은 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역 채점 문항은 1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1$ 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IBM Co., Armonk, NY, USA)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 분석,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97.4%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년은 3학년 37.2%, 2학년 33.5%, 1학년 29.3%, 순이었다. 출신 고교는 일반고교(인문계)가 73.8%, 학업성적은 중 71.2%,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가 82.7%로 가장 높았다. 학과 선택 이유에서는 취업률 55.5%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 추천 27.2%, 기타 7.33%, 성적에 맞춤 5.2%, 적성 4.7% 순이었다. 임상실습 횟수는 2회 이상 37.7%로 가장 높았고, 학과 만족도는 보통 62.8%, 만족 29.3%, 불만족 7.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91)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5	2.6
	Female	186	97.4
Grade	Freshman	56	29.3
	Sophomore	64	33.5
	Junior	71	37.2
Type of high school	General	141	73.8
	Aspecialized	47	24.6
	Qualification examination	3	1.6
Academic achievement	High	24	12.6
	middle	136	71.2
	Low	31	16.2
part-time job experience	Yes	158	82.7
	No	33	17.3
Reason for major selection	employment rate	106	55.5
	parents and teachers	52	27.2
	match one's grades	10	5.2
	Aptitude	9	4.7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Others	14	7.3
	None	55	28.8
	Once	64	33.5
Major Satisfactio	more than two times	72	37.7
	Satisfaction	56	29.3
	Average	120	62.8
	Dissatisfaction	15	7.9

3.2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 정도

전체 평균은 자기인식 3.27 ± 0.38 , 대학생활 적응 3.20 ± 0.54 , 타인인식 3.07 ± 0.79 순이었고, 자기인식 하위 요인은 사적 자기인식 3.39 ± 0.52 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불안 3.22 ± 0.42 점 공적 자기인식 3.19 ± 0.47 순이었으며, 타인인식에서는 공상적 타인인식 3.23 ± 0.89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적 타인인식 3.09 ± 0.76 , 외적 타인인식 2.90 ± 0.86 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에서는 사회적 적응 3.43 ± 0.64 점, 정서적 적응 3.32 ± 0.90 , 대학에 대한 애착 3.23 ± 0.74 , 신체적 적응 3.06 ± 0.60 , 학업적 적응 2.91 ± 0.7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n=191)

Division	M	SD	Min	Max
Self-awareness	3.27	0.38	2.03	4.45
Private self-awareness	3.39	0.52	1.67	4.78
Public self-awareness	3.19	0.47	1.80	4.60
Social anxiety	3.22	0.42	1.83	4.33
Other-awareness	3.07	0.79	1.00	5.00
Internal other-awareness	3.09	0.76	1.00	5.00
External other-awareness	2.90	0.86	1.00	5.00
Fancy other-awareness	3.23	0.89	1.00	5.00
College Life adjustment	3.20	0.54	1.76	4.72
Academic adjustment	2.91	0.70	1.00	4.60
Social adjustment	3.43	0.64	1.40	5.00
Emotional adjustment	3.32	0.90	1.00	5.00
Personal adjustment	3.06	0.60	1.40	4.80
Institutional adjustmen	3.23	0.74	1.40	5.00

by mean standard deviation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자기인식에서는 학과 선택 이유($F=2.722, p<0.05$), 학과 만족도($F=13.329,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타인인식에서는 학년($F=-3.303, p<0.05$), 학과 선택 이유($F=4.041, p<0.01$), 임상실습 횟수($F=3.362,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은 성별($t=-3.657, p<0.05$), 학업성적($F=10.301, p<0.001$), 학과 만족도($F=26.180,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 하위 요인 간 관련성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인식($r=.3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적응과 사적 자기인식($r=.340$), 공적 자기인식($r=.331$)에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타인인식($r=-.051$)은

대학생활적응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하위 요인의 정서적 적응($r=-.213$)에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특히 정서적 적응과 내적 타인인식($r=-.218$)에서 가장 높은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p<0.01$). 각 변수의 하위 요인별 관련성은 타인인식과 내적 타인인식($r=.992$), 자기인식과 사적 자기인식($r=.868$),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 적응($r=.806$)이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 요인 간 모두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자기인식과 학업적 적응($r=.210$), 사적 자기인식과 신체적 적응($r=.160$), 신체적 적응과 대학생활 애착($r=.360$)에서 가장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SA:자아인식, x1:사적자기인식, x2:공적자기인식, x3:사회적불안, OA:타인인식, x4:내적타인인식, x5:외적타인인식, x6:공상적타인인식, CA:대학생활적응, x7:학업적적응, x8:사회적적응, x9:정서적적응, x10:신체적적응, x11:대학생활애착

3.5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모형은 $F=2.902(p<0.01)$ 로 적합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 1.183~1.524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으며 잔차독립성은 Durbin-Watson 검정 값 2.183으로 2에 가깝게 나타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4.5%로 사적 자기인식($\beta=.232$)과 공적 자기인식($\beta=.254$)이 정(+의 영향을 주었고, 내적 타인인식($\beta=-.205$)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Table 5>.

4. 고찰

대학생 시기는 미래 인생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는 중요한 과정의 단계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의 대학생활과 학과적응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함께 앞으로의 삶의 비전에 있어 매

Table 3. The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Division	Self awareness			t/F (p)	Other awareness		t/F (p)	College Life adjustment		t/F (p)
	M	SD			M	SD		M	SD	
Gender	Male	3.03	.13	-1.414 (0.159)	2.83	.97	-.681 (0.497)	2.86	.19	-3.657 (0.011*)
	Female	3.27	.38		3.08	.79		3.21	.55	
Grade	Freshman	3.19	.36	1.763 (0.174)	2.84a	.88	3.303 (0.039*)	3.24	.60	1.471 (0.232)
	Sophomore	3.27	.35		3.13a	.82		3.27	.50	
	Junior	3.32	.41		3.19a	.67		3.12	.52	
Type of highschool	General	3.27	.36	1.455 (0.236)	3.02	.80	1.002 (0.369)	3.24	.53	1.534 (0.218)
	Aspecialized	3.25	.42		3.21	.79		3.11	.58	
Academic achievement	Qualification examination	3.64	.28	0.266 (0.767)	3.10	.17	0.689 (0.503)	2.92	.35	10.301 (0.000***)
	High	3.32	.40		3.20	.96		3.57 ^b	.54	
	middle	3.26	.35		3.03	.77		3.20 ^a	.52	
part-time job experience	Low	3.26	.49	1.091 (0.277)	3.15	.79	0.367 (0.714)	2.93 ^a	.48	-0.800 (0.425)
	Yes	3.28	.39		3.08	.79		3.19	.54	
Reason for major selection	No	3.20	.31	2.722 (0.031*)	3.02	.84	4.041 (0.004**)	3.27	.56	1.739 (0.143)
	employment rate	3.29 ^{ab}	.35		3.05 ^a	.74		3.25	.58	
	parents and teachers	3.25 ^{ab}	.40		3.14 ^{ab}	.74		3.08	.54	
	match one's grades	3.28 ^{ab}	.45		2.77 ^a	1.08		3.13	.40	
	Aptitude	3.51 ^b	.36		3.91 ^b	.84		3.52	.55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Others	3.01 ^a	.36	1.665 (0.192)	2.68 ^a	.82	3.362 (0.037*)	3.15	.56	2.030 (0.134)
	None	3.20	.36		2.84 ^a	.87		3.22	.61	
	Once	3.27	.36		3.12 ^{ab}	.83		3.30	.49	
Major Satisfactio	more than two times	3.32	.40	13.329 (0.000***)	3.20 ^b	.67	1.953 (0.145)	3.11	.53	26.180 (0.000***)
	Satisfaction	3.47	.38		3.20	.89		3.59	.53	
	Average	3.19	.34		3.05	.74		3.07	.47	
	Dissatisfaction	3.09	.37	2.76	.80	2.86	.40			

by t-test and Independent one-way ANOVA, a, b,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p<.05, **p<.01, ***p<.001

우 중요하다²³⁾.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감소와 코로나 19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대인관계 위축, 시간관리 부재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휴학·자퇴 등의 중도탈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며²⁴⁾.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는 예비사회인으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활에서 올바른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통해 인지적·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²⁵⁾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인식과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awareness, others-awaren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sub-factors (n=191)

	SA	x1	x2	x3	OA	x4	x5	x6	CA	x7	x8	x9	x10	x11
SA	1													
x1	.868***	1												
x2	.788***	.522***	1											
x3	.771***	.546***	.383***	1										
OA	.404***	.370**	.234**	.382**	1									
x4	.431***	.389***	.249**	.415***	.992***	1								
x5	.331***	.311***	.177*	.320***	.937***	.934***	1							
x6	.395***	.358***	.244**	.361***	.929***	.902***	.747***	1						
CA	.301**	.285**	.324**	.107	-.051	-.052	-.054	-.040	1					
x7	.210**	.171*	.175*	.165*	-.013	-.009	-.012	-.016	.687***	1				
x8	.342***	.340***	.331***	.142	-.051	-.044	-.077	-.024	.747***	.421***	1			
x9	.100	.119	.207**	-.107	-.213**	-.218**	-.194**	-.197**	.806***	.367***	.530***	1		
x10	.215**	.160**	.314***	.035	-.001	-.012	-.017	.024	.708***	.383***	.443***	.634***	1	
x11	.322***	.288***	.273***	.216**	.060	.059	.050	.063	.752***	.462***	.527***	.508***	.360***	1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 $p < .001$

SA:자아인식, x1:사적자기인식, x2:공적자기인식, x3:사회적불안, OA:타인인식, x4:내적타인인식, x5:외적타인인식, x6:공상적타인인식, CA:대학생활적응 x7:학업적적응, x8:사회적적응, x9:정서적적응, x10:신체적적응, x11:대학생활애착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인식정도 평균은 3.27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¹⁹⁾의 평균 3.32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²⁰⁾의 연구 3.53점, 3.32점 그리고 김²¹⁾의 3.41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인식 평균이 다소 낮지만 자기인식 정도는 중간점수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²⁰⁾. 하위 요인은 사적 자기인식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불안 3.22점, 공적자기인식 3.19점으로 임¹⁹⁾의 연구에서 공적 자기인식이 3.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반대였으며, 사적 자기인식은 3.32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사회적 불안이 2.99점으로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¹¹⁾의 공적 자기인식이 3.75점 사적 자기인식 3.53점 사회적 불안 2.85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지는지 중점을 두는 공적 자기인식에 비해 자신의 내적사고와 동기에 초

점을 두고²⁶⁾ 있음을 의미하여 임상실습, 취업 등 임상 현장에서 타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기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였다. 치위생과 학생의 타인인식 정도는 평균 3.07점으로 임¹⁹⁾의 3.11점, 간호학과 학생 대상 박²⁰⁾의 3.13점과 유사한 결과였고, 박¹¹⁾의 간호학과 학생 대상 타인인식정도 평균은 3.37점으로 치위생과 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은 공상적 타인인식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적 타인인식 3.09점, 외적 타인인식 2.90점으로 임¹⁹⁾의 공상적 타인인식 3.07점보다 다소 높고 내적 타인인식 3.22점, 외적 타인인식 3.03점과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3.20점이었고, 김 등²⁷⁾의 3.14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 요인에서는 사회적 적응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적응 3.32점, 대학에 대한 애착 3.23점, 신체적 적응 3.06점, 학업적 적응 2.91점 순으로 나타나 김 등²⁷⁾의 학업적 적응 2.87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와 동일하였다. 치과위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	B	SE	β	t(p)
Constant	2,012	.257		7,816(.000)***
Private self-awareness	.244	.087	.232	2,801(.006)**
Public self-awareness	.294	.091	.254	3,224(.001)**
Social anxiety	-.049	-.588	.557	-.043(.643)
Internal other-awareness	-.146	.052	-.205	-2,813(.005)**
External other-awareness	.171	.894	.373	.065(.122)
Fancy other-awareness	.001	.008	.994	.001(.186)

$$F=11,765(.000***), R^2=.159, adj.R^2=.145, DW=2,183$$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p < .01$, *** $p < .001$

생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지식과 실무 습득의 학업적 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입시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하는 학력격차와 학업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대학차원의 맞춤형 학습지원프로그램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정도는 학과선택이 유(F=2.722, $p=0.032$), 학과 만족도(F=13.329, $p=0.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적성을 고려하여 진학하고 학과에 만족할수록 자기인식 수준이 높았다. 타인인식은 학년(F=-3.303, $p<0.05$)이 높고 학과선택(F=4.041, $p<0.01$)은 적성을 고려한 경우와 임상실습횟수(F=3.362, $p<0.05$)가 증가 할수록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임¹⁹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우수한 경우 자기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타인인식에서도 학년, 실습경험, 학업성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이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상황과 환자와 치과 의료진과의 관계를 접하면서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인인식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위생 진출 분야에 따른 전공 진로의 다양성과 학생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은 성별($t=-3.657$, $p<0.05$), 학업성적(F=10.301,

$p<0.001$), 학과만족도(F=26.180, $p<0.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고, 학업성적 하위자보다 우수한 학생과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인식($r=.3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인식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력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타인인식($r=-.051$)은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인식과 타인인식($r=.404$)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박¹¹의 간호학과 학생 대상 연구결과와도 동일하였다.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적응과 사적 자기인식($r=.340$), 공적 자기인식($r=.331$)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고 노력 할수록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활의 정서적 적응($r=-.213$)과 타인인식에서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01$). 하위 요인에서는 정서적 적응과 내적 타인인식($r=-.218$)간에 가장 높은 부(-)의 관련성이 나타났다($p<0.01$). 타인인식도와 내적 타인인식($r=.992$), 자기인식과 사적자기인식($r=.868$),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 적응($r=.806$)이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인식과 학업적 적응($r=.210$), 사적자기인식과 신체적 적응($r=.160$), 신체적 적응과 대학생활에

착($r=.360$)에서 가장 낮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p<0.05$).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서적 적응은 상호 관계,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으로 개인의 인성 형성에 핵심이 되는 본인의 본질, 위치, 역할 등 본인 스스로 탐색 과정을 통한 적응으로²²⁾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타인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적 상호작용의 노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이는 유연한 사고와 공감능력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나 관심을 높이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의 경험적 교수-학습방법,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인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적 자기인식($\beta=.232$)과 공적 자기인식($\beta=.254$)이 정(+의 영향을 주었고, 내적 타인인식($\beta=-.205$)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의사소통능력을 종속변수로 한 임19)의 연구에서는 사적 자기인식($\beta=0.227$), 공적 자기인식($\beta=0.170$), 사회적 불안($\beta=0.182$), 외적 타인인식($\beta=0.282$)으로 나타났다($p<0.05$). 종속변수의 차이로 비교 해석은 어렵지만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긍정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 현장실습을 비롯하여 치과임상에서 환자의 욕구를 인식하여 치과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 개발과 의사소통, 대인관계, 감성지능과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otes

이해상충

본 저자는 이해상충이 없음

ORCID ID

Jl-YOUNG LEE, <https://orcid.org/0000-0003-0507-0617>

References

1. Lim KM.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students. JAECED 2019;26(3):127-141. <https://doi.org/10.12653/jecd.2019.26.3.0127>
2. Kim JG, et al. Relationships between compromise types of preferred university and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KJSP 2015;12(2):249-269. <https://doi.org/10.16983/kjsp.2015.12.2.249>
3. Yoo GS, Shin DW.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14(6):3849-3869. <https://doi.org/10.15703/kjc.14.6.201312.3849>
4.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2;9(2):261-268. <https://doi.org/10.7739/jkafn.2012.19.2.261>
5.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ip Quarterly 2002;13(3):243-274.
6. Lee KS, et al. Human relation & communication, Hyunmoon, Seoul, 2012:pp.61-80.

7. Lee KJ, et al. Interpersonal and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Hyunmoon, Seoul, 2014;pp.15–17
8. Fenigstein A.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1979;37:75–86.
9. Fenigstein A, et al.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 Psych* 1975;43(1):522–527
10. Eun HG.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J Korea Youth Counseling*. 2001;9:136–157.
11. Park IS.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18;2(1):1–11.
12. Ahrweiler F, et al. Clinical practice and self-awareness as determinants of empathy in undergraduate education: qualitative short survey at three medical schools in Germany. *GMS Zeitschrift Für Medizinische Ausbildung* 2014;31(4):25–39.
13. Kim SJ, Kim HH.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3;13(3):304–313
14.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9;18(3):351–60
15. Im SB.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Korean J Health Commun* 2006;1(1):59–66.
16. Jeon SU, et al. The influence of enrollment in general physical education upon undergraduates' ego-resilienc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Res Physical Educ* 2012;34:15–26.
17. Baker RW, Siryk B.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 College Stu Personnel* 1984;25:459–64.
18. Kim MH. A study on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8;17(1):55–64.
19. Lim SA.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5):733–740.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5.733>
20. Park SJ, et al. Effects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Health Commun* 2019;14(2):103–108. <https://doi.org/10.15715/kjhcom.2019.14.2.103>
21. Kim YS.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on interpersonal relation. *AJMAHS* 2018;.8(10):773–78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0.076>
22. Lee YJ.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Ehwa Woman's, Seoul, 2000.
23. Ye KH, Kim SJ. Study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department adaptation depended on gender in dept. of optometry—focusing on the emotional dimension. *Korean J Vis Sci* 2014;16(4): 432–44
24. Kim YJ. The college life adaptation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JLCCI* 2022;22(6):121–134.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6.121>
25. Kang MO.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2015;47:207–238. <https://doi.org/10.35504/>

kph,2015,.47.008

26. Ji EJ, et al.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19:571-579.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571>.
27. Kim YS, Lee JH.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6):919-929. <https://doi.org/10.13065/jksdh.2016.16.06.919>

초록

연구배경: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인식과 타인인식,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치위생과 재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동의를 구하고 G*power 3.1.9.4 program으로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와 상관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 사후분석 scheffe,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인식($r=.301$)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 요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적응과 사적 자기인식($r=.340$), 공적 자기인식($r=.331$)에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1$). 타인인식($r=-.051$)은 대학생활 적응과 부(-)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활 적응 요인으로는 사적 자기인식($\beta=.232$)과 공적 자기인식($\beta=.254$)이 정(+)의 영향을 주었고, 내적 타인인식($\beta=-.205$)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론: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으로 대학 생활의 적응력과 전공 직무와 연계한 핵심 역량 배양을 위해 향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대학생활적응, 자기인식, 치위생과 학생, 타인인식

ABSTRACT

The Effect of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i-Young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gree of self-awareness, recognition of other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justment.

Methods: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using the G*power 3.1.9.4 program, based on the data of 191 peopl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questionnaire.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 way ANOVA, Post HOC Scheff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difference and correlation between self-awareness, perception of other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self-awareness ($r=.301$).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s were with social adjustment in both private ($r=.340$) and public self-awareness ($r=.331$) ($p<0.01$). Recognition of others ($r=-.051$)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factors for adapting to college life, private self-awareness ($\beta=.232$) and public self-awareness ($\beta=.254$) had a positive (+) effect, and internal self-awareness ($\beta=-.205$)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p<0.01$).

Conclusion: The self-awareness and recognition of other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fluence their smoo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Improvement measures are recommended to enhance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develop core competencies related to their major.

Keywords: College Life adjustment, Dental Hygiene Student, Other-Awareness, Self-Awareness